

# Epilogue File



반드시 게임 종료 후 여십시오.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를 포함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 해답편: 수사 기록

“시체의 상태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일단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어요. 부지불식간에 잠자듯이 죽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죠. 그것도 몸을 만지거나 붙잡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만큼 가까운 관계말입니다. 그리고 범행은 아주 빠르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복장이 이상하더라 말이지요. 정리정돈이나 몸가짐에 엄격하다고 소문난 양반이 단추를 잘못 꿰 채로 저녁까지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챘다는 것도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의 복장이 그렇게 된 건 사후의 일이겠죠. 아마도 누군가 옷을 벗겼다 다시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범인이 그랬을까요? 그런 것 치고는 살해 방식의 깔끔함에 비해서 뒷처리가 엉성해요. 게다가 아마 범인에게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시간은 5분 정도였겠죠.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옷차림을 흐트러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시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 시체를 발견하고 20분이 지나서야 비명을 지르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피해자의 옷을 뒤졌겠죠. 여동생 분 말입니다.”

“그건 그 애가 범인이 아니라는 가설을 전제로만 성립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야 그렇죠. 그 분이 범인이 아니라고 전제해야 범인에게 시간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분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일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가요?”

“네. 간단합니다. 몸싸움의 흔적이 없고, 짧은 시간 내에 죽었다. 그리고 사인은 질식사. 그렇다고 교살은 아닙니다. 기도를 막지 않았다면 입과 코를 틀어막았겠죠. 입과 코를 막으면 사람이 바로 죽나요? 그럴 리가 없죠. 발버둥을 쳐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꽤 오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않은 게 아니라 못했다고 봐야겠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있었다는 건 마취약이나 수면제의 도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마취의 가능성이 높죠. 그 분이 마취약에 접근 가능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물론 피해자를 통해 펜타닐을 빼돌린 전적이 있으니 마취약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높죠. 마약성 약물을 요구하는 것과 마취약을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명백하게 불길하거든요. 마취약을 자신에게 쓸 리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불길함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마취약을 내줄 정도로 피해자가 그분에게 충직했다고 쳐도, 음... 그렇게 충직하고 편리한 사람을 죽일 이유가 대체 뭘까요?”

“범인에게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시죠.”

“사실 그분이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나면 이야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일단 사망시각 범위가 좁혀져요. 동생분이 들어간 게 6시 40분 경, 그리고 이찬호의 통화기록을 보면 6시 33분까진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죠.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그 사이의 7분입니다. 아마 통화가 끊겼을 시점에 범인은 이미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가 그때 진료실과 같은 층에 있으면서도 10분 이상 뒤에 만나자고 말했다는 점도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암시하죠. 뭐 이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위화감입니다.”

“위화감?”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시체 상태도 그렇고, 그 손수건도 그랬습니다. 범행에 손수건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손수건의 주인인 원장이 범인일까요? 그런 좀 이상합니다. 물론 원장은 이찬호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니 살해 동기는 갖춰져 있죠. 하지만 원장이 범인이라고 가정하려면 이찬호를 살해한 후 살해 도구인 손수건을 숨기지 않고 가져와서 원장실에 고이 놔두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손수건이 살해 도구가 아니었다면 더 이상합니다. 일부러 시체에 손수건의 흔적을 남긴 다음 손수건을 원장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대체 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해석은 어떤 건가요?”

“간단합니다. 원장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손수건의 살해도구여도, 살해도구가 아니어도 말이 됩니다. 원장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건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원장의 손수건을 사용한 건 단지 혐의를 자신에게서 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원장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전자라고 보기엔 타켓이 너무 구체적이죠. 이 문제는 범인이 피해자와 원장, 두 사람에게 모두 악의를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명쾌해집니다. 사장님이라면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시겠죠?”

“말에 빠가 있는 것 같네요. 너도 비슷한 상황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뇨 아뇨, 그런 무례한 생각을 할 리가요. 이번엔 저희도 사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 걸요. 정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 기억금고라고 하던가요?”

“사건 이야기나 계속 해보시죠.”

“예, 예. 다시 돌아가서, 원장이 감옥에 가거나 혹은 스킨들에 휩싸여서, 즉 원장이 이 병원에서 물러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김가원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등과 2등을 제끼면 3등이 1등이 되겠죠. 김가원은 범인에게 필요한 조건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범인의 조건은 세가지. 원장실과 마취약에 모두 접근이 가능한 사람. 이찬호의 몸에 손을 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범행시각의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현장에 원장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 그러니까 원장실에 손수건을 가져다 놓을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조건이라면 확실히 한 사람밖에 없네요.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할 필요 없이.”

“네, 뭐. 언론에 관련자들 정보가 흐르진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 발표하는냐는 결국 저희 권한이고요. 게다가 곤란하단 말이지요. 우연이러곤 해도 관련자 4명의 구성이 진 병원 계열 2명, UH 계열 2명인데다가, 진 병원 계열의 2명은 감옥에 갈 처지고 다른 둘은 살아남았잖습니까? 뭐가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저희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 걱정 말고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지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짐짓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아, 캐스팅 보트인가요?”

## 후일담

진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범인인 김가원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사건은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되었다.

사건이 준 충격이 무색하게도 언론은 잠잠했다. 사건의 배경이나 현장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라고 해 봤자 추측성 기사 뿐이었다. JD계약은 물론이고, UH라는 이름은 어느 보도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찬호가 펜타닐 중독이었다는 사실도, 한 간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알려지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최민성은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런 그를 추궁하는 사람은 없었다. 윗선과의 ‘딜’이 있었다는 소문도 흘렀다.

사건 직후, 김득진은 진 병원의 임상실함과 관련해 경찰에 소환되었다.

최혜민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병원을 그만두었다. 기가 죽거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발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는, 더 이상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